

2022년 2월 3일 (목)

News

조건 좋을 때 짐싸자…4대 시중은행, 1월에만 1800명 희망퇴직

매일경제

4대 시중은행, 1월 기준 1,817명 희망퇴직한 것으로 집계… 가장 큰 특징은 대상 연령이 만 40세까지 낮아졌다라는 점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덕분에 종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유리해진 점이 희망퇴직 선택에 영향 미친 것으로 분석… 국내 시중은행 부지점장급 직원은 4~5억원 정도 받을 것 예상

토스 1조 프리IPO 추진

머니투데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최대 1조원 규모의 프리 IPO 추진… 잠재후보군을 대상으로 입찰제안서 배포… 실무 작업은 모건스탠리와 크레디트스위스가 맡고 있어…

이번 프리 IPO를 통해 비바리퍼블리카 책정 기업가치는 최대 20조원 넘어설 것으로 관측… 장외 거래에서는 이미 기업가치가 20조원에 이르러…

은행 '우체국 지점활용' 어디까지… 금융위 해결사로 나서나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은행연합회, 4대 은행 담당자들, 시중은행-우체국 업무제휴 TF 가동… 입출금 송금 등 은행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는 것이 주요 논의 과제

업무 범위 관련 이견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체국은 전국단위로 업무제휴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중은행들은 대도시 이외의 지역 중심으로 하자는 입장… 금융당국, 해결에 적극의지

은행들 "10대 고객 잡아라"… 2세대 전용서비스 경쟁

연합뉴스

시중은행들, 10대 청소년 겨냥한 금융 플랫폼 내놓으며 미래 잠재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 펼쳐… KB국민, 리브 넥스트… 신한, 10대 전용 신한 밤 카드 출시
하나, 금융플랫폼 아이부자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미니 출시… 빅테크 계열 금융 플랫폼에 미래 잠재고객 빼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

실손보험료 5년간 60% 넘게 올라… 135% 인상한 보험사도

보험매일

1세대 구 실손보험의 2017~2021년 누적 인상률은 5대 주요 손보사 평균 76.8%에 달해… 3대 주요 생보사의 5년간 1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평균 28.3%

5년간 누적 인상폭은 3~5년마다 갭신하는 구실손 상품보다 오히려 커… 롯데손보, 흥국화재, 한화손보 등 경영난 등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상한선(25%) 적용받지 않아…

교보생명, 보험업계 첫 마이데이터 '피치' 공개

아시아경제

교보생명, 보험업계 최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피치' 출시… 현재 보험업계에서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은 기업은 교보생명과 KB손보 뿐
손안의 금융비서, 생애자산설계, 건강자금관리, 맞춤형 금융교육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 금융취약계층도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AI 음성합성 기술 적용

코스피 약세에 ELS 발행도 '뚝'… 한숨 깊어지는 증권가

아시아투데이

코스피 하락으로 ELS에 대한 인기도 시들… 올 1월 한 달 간 코스피200 기초자산으로 한 ELS 발행액은 7,387억 1,037만원으로 12월 한 달보다 30.4% 감소한 규모
ELS발행액이 너무 많이 줄어 금투업계 고심 깊어져… 시장이 지속해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일각에서는 ELS 녹인 구간 진입 및 조기상환 어려움 때문에 우려 제기

설 연휴 이후 IPO 기상도… 봄날은 3월에야

아주경제

LG에너지솔루션 이후에도 여전히 상장을 대기 중인 기업들이 줄을 서지만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아… 인카금융서비스와 바이오에프디엔씨 수요예측에서 좋은 결과 내지 못해…
인카금융서비스는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낮은 18,000원 결정…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공모가 밴드 23,000~29,000원에서 수요예측 진행해 74.01대 1 기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